

“소중한 지구, 우리 함께 지켜요”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생태 환경전 '나와 고래의 지구'展

환경오염 심각성·자연 생태계와 공존 중요성 조명 국립생태원·디자이너팀 등 새로운 작가·기관 협업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를 아껴요.”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듬해 6월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어린이 생태 환경전 '나와 고래의 지구'전을 선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지구에게 코로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간의 소비활동과 지구를 대하는 태도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작품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다른 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는 국립생태원, 박신영 식물세밀화 삽화가, 디자이너 팀 성실화랑 등 미술관 전시로는 새로운 작가 및 기관들이 참여했으며, 김은경, 문창환, 엄기준 등 젊은 지역 작가들과 김원정, 정재철 등 중앙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제일 먼저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의 프로젝트에 시선이 모인다. 회귀동물 연구·보존에 힘쓰고 있는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는 2017년 '바다거북 부검연구'를 진행했다. 여수 한파 아쿠아플라넷에서 성장한 3살 아기 바다거북이 방류 11일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된 것. 부검

결과, 폐사체에서는 약 200개의 쓰레기 등 다양한 이물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양생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김원정은 잡초의 생명력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 'Life on Mars'는 오염된 지구를 떠나 화성 탐사대가 된 잡초맨을 조각 설치작품으로 구성했다.

김은경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친근한 장르를 통해 투박하지만 귀여운 모습의 돌맹이들이 생명력을 부여한다. 돌맹이처럼 보이는 두 개의 존재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통해, 지구 운난화 이후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창환은 '0.1,2'라는 멀티미디어 영상 작품을 통해 지구의 온도가 현재와 같을 때 (0), 1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를 상상하며 경각심을 제시한다. 빙하가 녹아내려 물에 잠기는 건물은 광주시립미술관이며,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의 모습을 담은 'Yellow Card' 영상작업도 함께 준비했다.

박신영은 18개의 '식물 세밀화' 작업을 선보인다. 모두 삽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민들레, 엉겅퀴와 같이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들꽃을 세부적으로



정재철 작 '블루오션 프로젝트'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묘사한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식물들에 관심을 갖게 한다.

2명의 디자이너가 주축이 되는 팀 성실화랑은 2011년부터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동물 멸종의 심각성을 접한 후, 디자인이라는 장르를 통해 잔인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시작했다.

엄기준은 4점의 평면회화를 통해 유조선과 원유 채굴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특히 한반도에만 서식했다가 멸종한 '귀신고래'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동물 멸종의 주제를 시사한다.

전시장 중앙에는 정재철의 '블루오션 프로젝트-크라켄 부분'이 설치돼 있다.

이 작품은 해양 오염에 관한 작업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연장이다. 작가는 제주도와 신안 앞바다 등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기록했다. 바다 쓰레기를 바다 생물들을 위협하는 괴물 '크라켄'이라 칭하며, 바다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보여준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 관람객들이 미술작품을 통해 환경오염의 현실과 심각성을 접하고,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요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으며, 선착순 입장도 일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립미술관 (062-613-7100)를 통해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첼로 선율에 흐르는 晩秋의 낭만

광주시향정기연주회 '고전의 품격'...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할 연주회가 광주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의 제358회 정기연주회 '고전의 품격'이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향의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첼리스트 김두민이 협연자로 함께해 관객들에게 클래식 고전의 품격을 선보인다.

공연에서는 경쾌한 리듬과 활기찬 분위기의 하이든 첼로 협주곡 D장조를 들려준다.

다작의 작곡가로 유명한 하이든은 궁정과 귀족들의 보살핌과 후원에 힘입어 모든 장르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었다. 하이든은 30여년간 에스테라치 후작에게 봉사하며 첼로 협주곡 C장조와 D장조 두 곡을 작곡했다. 이 중 D장조는 명쾌한 형식과 매끄러운 선율, 첼로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화려한 기교 등 여러 매력으로 참다운 고전적인 협주곡으로 꼽힌다.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인 낭만과 거장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6번이 다음 순서를 장식한다.

브루크너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음악학자 에른스트 쿠르트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6번 A장조에 대해 "찬란한 광채처럼 빛난다"고 말했듯이 이 교향곡은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가운데서도 따뜻하고 풍부한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브루크너 자신도 이 교향곡이 "가장 친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조로 작곡된 브루크너 스타일에서 벗어나 장조로 작곡돼 평안하고 쾌활한 느낌과 맑고 밝은 분위기를 지녔다.

첼리스트 김두민은 한국과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주가로, 그의 깊고 웅



첼리스트 김두민. <광주시향 제공>



홍석원 예술감독

고한 울림이 빛나는 연주는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동아음악콩쿠르 우승으로 일찍이 두각을 나타낸 김두민은

아스펜 협주곡 콩쿠르 우승, 파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 입상했고 서울시향, 인천시향,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무대에 올랐으며,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연주하고 있다.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는 앙드레 프레빈의 지휘로 노르웨이와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순회공연 협연을 올린 바도 있다. 김두민은 안네 소피 무터 재단에서 후원한 장 밥티스트 비움 첼로로 연주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티켓은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어린이 및 청소년 50%)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향교향악단 062)524-5086 /최명진 기자

“밝고 아름다운 가곡으로 희망 주고 싶어”

김소정 작곡 발표회 '나의 예술 가곡 이야기'...28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암울한 코로나시대 밝고 아름다운 노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빛고을 광주를 중심으로 꾸준한 작곡 활동을 해왔던 김소정(사진) 작곡가가 오는 28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광주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이태리 가스파레 스포티니 공립음악원동문회, 한국작곡가회, 광주작곡가협회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나의 예술 가곡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날 공연에서는 '통일연가', '5월, 그날

의 불꽃' 등 총 16곡을 선보인다. 모든 곡들은 가곡으로 김 작곡가의 창작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은 김 화정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일연가'와 김 작곡가가 시를 쓰고 곡을 붙인 '5월, 그날의 불꽃'이다.

현재 광주통일교육센터 소속 통일합창단장이기도 한 김 작곡가는 음악을 통해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연가'를 작곡했다.

"통일이 된 남과 북을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멜로디에 맞게 개사를 하고, '통일연가'란 제목도 제가 붙인 만큼 의미가 큰 작품이죠."

특히, '5월, 그날의 불꽃'은 지역 내 시인으로 활동하는 김 작곡가의 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지난해 5·18 40주년을 맞아 박기순 열사를 기리는 곡을 썼어요. 박 열사는 1970년대 말 노동 운동가로 5·18민주화 운동을 이끈 '불꽃야학'을 창립한 인물입니다. 5월 그날의 열망을 담아 한 수 한 수 지어낸 곡인 만큼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날 공연은 테너 윤병길, 소프라노



김소정, 이승희, 바리톤 이하석이 이 지은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선보인다.

김 작곡가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회자되길 바란다는 작은 희망을 내비쳤다.

"아름다운 가사와 감미로운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우리의 전통가곡은 세월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수록 매력적인 우리 가곡이 대중들의 삶에 한발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최명진 기자

영상으로 즐기는 발레 '지젤'

'작은스크린'...오늘 오후 7시30분, 유니버설발레단 작품 상영

"유니버설발레단이 선보이는 발레 '지젤'을 영상으로 즐겨보세요~"

화면으로 공연을 즐기는 '작은스크린(Sac On Screen)' 6회차 공연 발레 '지젤'이 2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영상은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2014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무대에 올린 작품을 영상화한 작품이다.

발레 '지젤'은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이후 1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발레 팬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작품이며, 총 2막으로 구

성돼 있다. 발레 '지젤' 1막은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이 알브레히트의 배신에 오열하며 광란과 죽음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며, 2막은 죽어서도 연인을 지키려는 지젤의 숭고한 사랑을 그린다. 상영 시간은 100분.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 예약은 전화 신청 (062-670-7933)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늘푸른수목장의 장점 ■

- 1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3 재계약이 필요없이 영구사용 가능합니다.
- 4 온 가족이 산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푸른수목장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12-6183